



“플루트의 ‘본향’ 프랑스 감성 전달하고자”

“매번 무대 위에 서면 악기를 연주하는게 아니라 노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자를 카운트하는 기계인 메트로놈처럼 감정 없이 텅텅(진동)하기보다, 선율을 써내려가듯 정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독특한 이름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플루티스트 지아셀(33·지 Jasher) 씨. 히브리어에서 유래해 교회식으로 지은 그의 이름은 예명 아닌 본명이다.

개성 있는 명칭만큼 그의 이력도 흥미롭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예고, 전남대 음악학과를 살기우 수자로 입학한 뒤 수석 졸업, 프랑스 발 모베 음악원에서 실내악(DEM)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생모르 시립음악원 Perfectionnement를 거쳐 세르지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하면서 전문 연주자로서 기반을 닦았다.

일찍이 그는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교도필하모닉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지아셀이 오는 25일(오후 7시) ACC 예술극장에서 ‘지아셀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앙상블칸타빌레가 주최한다.

지난 21일 금남로 일원에서 지아셀을 만나 그동안의 음악 여정을 비롯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왜 프랑스로 갔냐는 질문에 그는 “플루트 ‘본향’이라는 상징성보다도 그들의 음악이 선사

호남예술제 출신 플루티스트

‘지아셀 귀국 독주회’ 25일 ACC

프랑스 발 모베 음악원 실내악 전공

하는 원천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감명 깊게 듣고 자란 프랑스 출신 조지 에네스코 등에게 어떤 음악적 특별함이 있는지 궁금해 ‘본토’로 떠났다”며 “이번 귀국 독주회를 장식하는 첫 곡도 에네스코의 ‘Cantabile et presto’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교적 호흡이 짧아 관악기에 속달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했다. 그럼에도 “갖고 있는 공기의 총량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웃었다.

일례로 점점 공기를 빼고 데크레센도로 표현해야 하는 곡에서 오히려 호흡을 가미, 크레센도로 변주하는 식이다. 물론 기본기에 충실해야만 베리에이션(변주)과 애드리브가 가능하다.

지아셀은 이번 연주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인터미션을 기점으로 1부는 익숙한 곡, 2부는 난도 높고 익숙지 않은 곡으로 편성했다. 당초 6월 이후 연주회를 계획했으나 “부족하더라도 연주회



플루티스트 지아셀이 오는 25일 ACC에서 ‘귀국 독주회’를 펼친다. 작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했던 ‘광주윈드페스티벌 앙상블’ 연주회. <지아셀 제공>

일정을 빨리 잡아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연을 앞당겼다”는 후문이다.

그는 “연습 과정에서 까미유 생상스의 ‘론도 카프 리치오소’가 가장 어렵게 다가왔다. 바이올린으로 편성됐던 곡을 플루트로 재해석하는 테라 레가토(연음), 주선율의 과감성을 녹여내는데 간단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아사 하이페츠나 막심 뱁

개로프 등,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영상을 보며 속달에 이르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는 예고 재학시절 경험이 풀려났다.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싫어 잠시 학교를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결국 예술가가 천직이라는 생각이 보편대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발 밑만 보면 계속 저 아래만 보이는 것 같아요. 타인과 비교하거나 한가지 생각에만 골몰하면 예술

가로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을 증명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봐요.”

한편 지아셀은 광주 윈드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현재 나주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공연기획사 아르테아(artea)를 설립, 다양한 작품을 기획중이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하얀 종이와 검은 먹이 변함없이 함께 간다

우석 박신근 서예가 기획 초대전, 2월27일까지 광주미술관

“서예는 흑과 백, 하얀 종이와 검은 먹이 변함없이 함께 간다는 데 묘미가 있다. 또한 시대가 변해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장르와 변별되는 장점이다.”

우석 박신근 서예가의 기획 초대전이 광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월 27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는 기존의 작품과 신작 등 모두 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작품은 박 작가가 평소 알고 있거나 매모해했던 고전의 명구들이다. 공자를 비롯해 장자, 맹자, 대학, 채근담 속 문장과 눈에 익숙한 성경구절도 있다. 이번 전시는 박 서예가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올해 6월이면 붓을 잡은 지 만 50년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는 취미나 여가로 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붓을 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글씨를 써오는 동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올해로 37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대학’의 전문을 쓴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학’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자세 등을 담고 있다.

글귀 중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도 있다. 생활의 자세, 몸가짐 등에 대한 지

침들로 시대가 다를지언정 오늘날의 시대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작품들은 5체, 즉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다채롭다. 더러 두 개 서체 등을 혼합해 쓴 것도 있다. 박 서예가는 “전서와 예서를 가미한 글씨도 있고 전서와 행서를 함께 쓴 작품도 있다”며 “각각의 작품성을 고려해 그 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전시장을 둘러보다 잠삼선생의 시와 마주한다. “봄바람이 부드럽고 햇살 따뜻한 봄빛이 넘실거리니 나비와 벌은 노닐다 어지러이 방으로 들어오네. 문 앞 버드나무 몇 줄기 웃결이 아래로 늘어지고 한 조각 산 꽃잎 책상에 떨어지네.”

작품을 보며 지금의 어지러운 시국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봄’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진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는 것은 인지 상정일인데, 올해 봄은 더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이라는 시를 쓴 작품도 있다. 굵이굵이 협곡을 따라서 내려오며 9곡에 대해 쓴 시다. 읽는 것만으로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박 서예가는 (사)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호남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 교류전 및 단체전에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잠삼 선생 시

설 연휴 ‘예술영화’를 만나다

광주극장, ‘애니멀 킹덤’·‘그들은 피아노 연주자를 썼다’ 개봉

이번 설 연휴에는 철학, 미학, 윤리를 관통하는 예술영화를 감상하며 사유의 진폭을 넓혀보는 것이 어떨까. 프랑스부터 스페인, 부탄, 일본, 영국까지 세계 각국을 종횡무진하는 작품들이 광주극장 스크린에 걸린다.

광주극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작품 개봉을 알렸다. 먼저 22일 개봉한 ‘애니멀 킹덤’은 원인 불명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동물로 변하는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다.

작품은 제7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제56회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비주얼 메이크업 효과상) 등에서 특유의 미장센을 인정받았다.

같은 날 개봉한 ‘카리바조의 그림자’는 이탈리아 3대 전제 화가로 꼽히는 카리바조의 테네브리즘(명암 기법)에 주목한다. 라누치오를 살한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던 화가 카리바조의 실제 생애를 모티브로 드라마틱한 서사를 구축했다.

30일 찾아오는 ‘그들은 피아노 연주자를 썼다’는 브라질 전제 피아니스트 테노리우 주니오를 찾아 나서는 음악 기자 제프 해리스를 조명한 재즈 애니메이션이다. 이어 ‘벌집의 정령(2월 1일 개봉)’은 빅토르 에리세 감독의 데뷔작으로, 1940년대 초 스페인 내전 직후 시대를 다뤘다.



‘애니멀 킹덤’

이외 ‘총을 든 스님’, ‘파문’ 등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찾아온다. 25만 관객을 돌파(19일 기준)한 ‘서브스탄스’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 ‘더 폴: 디렉터스 컷’ 등도 흥미로운 시놉시스로 주목 받는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칸 영화제와 세자르영화제를 석권한 판타지 드라마부터 바로크 미술시대를 그린 걸작, 보사노바와 재즈를 영상미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까지 여러 장르를 상영한다”며 “설 연휴간 가족들과 함께 극장을 찾아 예술적 감수성을 충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울한 시대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이지원 화가, 시화집 펴내

“아침에 눈을 뜨니/장박으로 하얀 풍경/ 밤새 세상을 덮었네/ 나뭇가지들 위로/ 소복이 쌓여 더 멋있어진/ 나뭇가지// 스무 살 무렵의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떠올리네// 그때도 눈이 왔었지/ 눈송이가 떨어지니/ 나는 환호성을 내며/ 검은 코트에 빨간 목도리/ 매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지/ 흥분된 그 모습...”

눈 내린 풍경을 이십 대의 풋풋한 감성으로 그린 시다.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어 화자의 목소리는 맑은 감성이 가득하다.

이지원 화가가 시와 그림이 있는 시화집 ‘희망의 노래’를 펴냈다.

우울한 소식이 많은 요즘이지만 작품집 제목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때다.

이 작가는 얼마 전 갤러리 생각상자 초대로 시화집에 실린 작품 위주로 전시회를 열었다. 서정과 서경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보는 이에게 진잔한 여유와 위안을 줬다.

한성대 회화과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지난 2018년 개인전 ‘오후 햇살 속의 기다림’을 비롯해

몇 차례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시화집을 펴내게 된 데 대해 “희망이란 빛과 같아서 웃음이나 맘을 흘리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 같다”며 “소소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조금은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작은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작은 시작이나 작은 행동, 작은 것들에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며 “선한 것들을 향해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접 쓰고 그린 시와 그림은 보는 맛, 읽는 맛을 선사한다. 시를 읽고 그림을 읽어도 좋고, 그림을 먼저 감상하고 작품을 봐도 무방하다. 수록된 시는 3년 간 썼던 작품을 묶은 것이다.



‘눈 온 날’

“두번째 산책”, ‘비오는 날 집안에서’, ‘오후네 시의 찬란’, ‘일주일을 살며’ 등 작품들은 동화적이면서도 수채화 같은 분위기를 선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 설엔 ‘시아와 친구들’ 세트로 웃놀이해요

ACC재단, ‘들락 DLAC’ 출시

올 설엔 ‘시아와 친구들’ 세트에 웃놀이 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최근 출시한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의 신상품인 ‘웃놀이 세트’가 눈길을 끈다. 이번 ‘웃놀이 세트’는 어린이문화원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한 것으로, 웃놀이를 하는 동안 미션을 수행하며 아시아 문화를 익힐 수 있다.

신상품 출시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펼쳐진다.

오는 31일까지 ‘들락 DLAC’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소망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또 들락과 들락키즈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된다. 25일부터 30일까지.

한편 ACC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은 아시아의 문화를 의미하는 브랜드다. ‘들락 키즈’는 아시아 문화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했다. 교구재를 비롯해 문구, 도서 등 다채로운 어린이 문



시아와 친구들 웃놀이 세트. <ACC재단 제공>

화 상품을 선보인다.

웃놀이 세트는 온·오프라인 문화상품점 ‘들락 DLAC’과 어린이문화원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화사업개발팀 전희선 담당자는 “이번 ‘시아와 친구들’ 웃놀이 세트는 설을 맞아 선보이는 신상품”이라며 “가족들과 즐거운 놀이도 하고 아시아 문화도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